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요사이 부업 있는 것은 일자리 사정 좋다는 증거
- WSJ: 부채 상한선 대응 백업 계획 있지만 여전히 갈등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 스탠리, “수개월 내 S&P 500, 26% 떨어진다”
- Bloomberg: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니, “은퇴에 필요한 돈은 3백만불 이상”

[부동산]

- WSJ: 사무실 건물자 채무불이행 악화 일로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글로벌 기업들, 제조 중국 대안으로 아시아 눈독들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주 4일 근무제 시행한 기업들 90%, “계속하고 싶다”
- WSJ: CEO부터 프로그래머까지,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협업 시험 하는 근로자들
- Bloomberg: 숙련공 구하기 어려운 철강 업계, 로봇 도입 늘린다
- CNN Business: 영국서 2주 4일 근무 시범 운동으로 남자들 자녀 양육 시간 늘어
- WSJ: Walmart, 할인 원하는 쇼핑객들 덕에 매출 호조
- WSJ: 아마존 근로자들, 주가 폭락 후 임금 삭감 직면
- Business Insider: 미 주요 소매업체들, 2023년 8백개 이상 매장 문 닫는다

[보고서]

- 모건 스탠리 에쿼티 전략: Weekly Warm-up: Into Thin Air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Your Side Hustle Is Another Sign of a Tight US Job Market 요사이 부업 있는 것은 일자리 사정 좋다는 증거

-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자리에서 일한다는 건 한 일자리에서 충분한 임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경우 이들은 일자리 숫자를 늘려 일한다고 ZipRecruiter는 전했다.
- 원격 근무와 유연한 근무 때문에 근로자들이 여러 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 데이터는 비정규직(gig) 경제 범위를 저평가할 수 있다. 최근 스탠포드대 등이 자료 결과 근로자의 거의 10%가 본업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개 이상 부업을 갖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Debt-Ceiling Standoff Prompts Backup Plans, but They Face Hurdles Too**부채 상한선 대응 백업 계획 있지만 여전히 갈등**

- 부채 한도를 의회가 높이지 못하면 연방 정부 채무불이행은 피할 길이 없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다. 1) 1조 달러를 찍어 내고 2) 연방정부 지급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2)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 재무부에 요구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미연방 국채에 대한 지급을(국채 소유자들에게) 먼저하고 교통, 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은 늦추라는 것.
- 그러나 옐런 재무장관은 2) 조치가 시행된다면 경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부채 상한선 31조4천억달러를 올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Morgan Stanley Says S&P 500 Could Drop 26% in Months
모건 스탠리, “수개월 내 S&P 500, 26% 떨어진다”**

- 올해 상반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금융기관은 최근 경제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지만 연준이 긴축 금리 정책을 바꿀 피벗 가능성도 사라졌다는 것.
- 올해 급격한 랠리로 주식 리스프 프리미엄 기준에서 볼 때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비싼 주가를 하고 있으며 ‘죽음의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전했다.
- 주식에 대한 리스프 보상은 현재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수익 기대치는 여전히 10%~20% 더 높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ow Much Do Investors Say They Need To Retire? At Least \$3 Million**투자자들에게 물어보니, “은퇴에 필요한 돈은 3백만불 이상”**

- 블룸버그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얼마 정도 모아지면 만족스럽게 은퇴 하겠느냐?”의 질문에 대답은 3백만불에서 5백만불 사이라는 것.

- 응답자의 3분의 1은 3백만불, 다른 3분의 1은 적어도 5백만불이라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WSJ: Office Landlord Defaults Are Escalating as Lenders Brace for More Distress

사무실 건물자 채무불이행 악화 일로

- 요지: 대출 기관이 더 많은 고통을 대비하고 있으며,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을 지원하는 사무실 대출 용자의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대형 사무실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 건수가 올라가고 있다. 즉,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행태 때문에 사무실 부동산 시장이 영구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늘고 있다.
- 일례로 Brookfield Asset Management는 총 7억5천만불 부채를 이행하지 못했다. Related Cos.와 BentallGreenOak 등도 마찬가지.
- Boston Properties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침체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Global firms are eyeing Asian alternatives to Chinese manufacturing

글로벌 기업들, 제조 중국 대안으로 아시아 눈독들여

- 제조 대국인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를 이제 Altasia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제조국으로서 중국을 뛰어넘을 국가들이다.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 2021년 기준으로 노동력도 중국의 9억5천만명보다 많은 1조 4천억이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젊은 노동력 숫자도 중국의 1억4천5백명에 비해 1억5천4백만명으로 더 많다.
- 특히 이들 국가는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급 기술 능력을 갖춘 국가도 있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가들의 노동 임금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일례로 소니, 삼성, Dell은 중국 제조 투자를 줄이고 있다.
- 특히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 주도의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통합되고 있다.

-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중국처럼, 인력과 자본 투자, 공급망 등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규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노동력 수준도 떨어진다. 따라서 당장 중국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갈등 등으로 외국 투자국가들의 매력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 임금도 매우 높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국으로서의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fter Testing Four-Day Week, Companies Say They Don't Want to Stop

주 4일 근무제 시행한 기업들 90%, “계속하고 싶다”

- 지난 6개월간 주 4일 근무제의 시험 실행에 참여한 은행, 패스트푸드점, 마케팅 대행사 등 61개 영국 기업들의 90% 이상이 주 4일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8개 기업은 영구적으로 이어갈 계획.
- 주 4일제의 시험 실행 동안 46%의 기업들이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34%는 약간 증가, 15%는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 이직과 결근이 크게 감소했고, 39%의 직원이 스트레스 감소, 약 50%가 정신건강 개선, 37%는 신체 건강 개선을 답했다.
- 이렇듯 주 4일제의 도입은 팬데믹 이후 업무 유연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험 실행되고 있다.

WSJ 기사

WSJ: From CEOs to Coders, Employees Experiment With New AI Programs

CEO부터 프로그래머까지,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협업 시험하는 근로자들

- 전 세계적으로 건축,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전반의 사업가들이 인간과 매우 유사한 글쓰기, 이미지 및 예술 창조가 가능한 생성적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업무에 도입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
- 업무에서의 AI 사용은 그동안 사람들이 단순하게 구글 검색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매던 것과 대비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AI의 작업물이 점차 인간의 것과 유사해질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커진다.
- 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도구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조 지원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성적 인공지능

이 불확실한 콘텐츠와 거짓 정보를 내놓을 수 있으며, 저작권 도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도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WSJ 기사

Bloomberg: With Human Metalworkers Hard to Come By, Robotic Blacksmiths Step Up

숙련공 구하기 어려운 철강 업계, 로봇 도입 늘린다

- 스타트업 Machina는 로봇을 사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수작업이 필요한 금속 부품을 만들어 NASA, 미 공군 등에 납품하고 있다.
- 로봇들은 아직 대량 생산을 대체하기에는 느리지만, 점차 세밀한 금속 성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작업 초기 단계 시제품 제작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준다.
- Machina의 로봇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점차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결합 등으로 3D 프린팅이 이루지 못한 금속 공정 전면 자동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Men did a lot more childcare while trialing a four-day work week

영국서 2주 4일 근무 시범 운동으로 남자들 자녀 양육 시간 늘어

- 비영리 단체 4 Day Week Global(4DWG)에 따르면 영국 남성들이 주 4일 근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그들 자녀와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
-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남성 근로자들의 시간이 27% 늘어났으며 여성들의 경우는 13%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0%는 일과 자녀 돌봄을 함께 하는 게 더 쉬워졌다고 답했으며, 62%는 사회생활도 더 쉬워졌다고 응답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Walmart Posts Strong Sales, Earnings as Shoppers Look for Discounts

Walmart, 할인 원하는 쇼핑객들 덕에 매출 호조

- Walmart가 자금 압박으로 할인 소매점을 찾는 쇼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주 화요일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천 6백 40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발표했다. 순이익은 76% 증가한 63억 달러였다.
- Walmart는 고소득 가구를 포함해 미국 소비자들의 식료품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12월에는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

지만 소비자들이 필수품 지출을 우선시하며 일부 비식품 품목의 판매는 감소했다.

- 한편 Walmart는 인플레이 전망이 불확실하고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짐에 따라 다소 어두운 올해 전망을 제시했다.

WSJ 기사

WSJ: Amazon Corporate Workers Face Pay Reduction After Shares Slip 아마존 근로자들, 주가 폭락 후 임금 삭감 직면

- 아마존의 주식이 지난 1년간 급격히 하락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2023년 급여가 예상 목표치보다 15~5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아마존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다른 빅테크보다 적은 기본급을 주는 대신 상당 부분의 연봉을 자사 주식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 한편 지난해 대규모 구조 조정과 주가 폭락을 겪으며 아마존은 사상 최악의 재정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usiness Insider: More than 800 stores are closing across the US in 2023. Here's the full list.

미 주요 소매업체들, 2023년 8백개 이상 매장 문 닫는다

- 주요 소매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비용 절감, 파산 등의 이유로 2023년 미국 전역에서 적어도 803개의 소매 매장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Bed Bath & Beyond는 416개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며,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Tuesday Morning은 265개 매장, Gap and Banana Republic은 74개 매장, Party City는 22개 매장, Walmart는 7개 매장의 철수 계획을 밝혔다. Macy's, Amazon 등도 이름을 올렸다.

Business Insider 기사

[보고서]

모건 스탠리 에쿼티 전략: Weekly Warm-up: Into Thin Air

- With the Equity Risk Premium at its lowest level since 2007, the risk-reward for stocks is extremely poor, particularly with a Fed that is likely far from done, and earnings expectations that are 10-20% too high.
- It's time to head back to base camp before the next guide down in earning.

모건스탠리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벤처투자 돈줄도 급감...
벤처캐피털 자금 모집 9년만에 최소"**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 등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하면서 작년 4분기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금 모집액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데이터 회사 프리킨 자료를 인용해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작년 4분기 206억 달러(약 26조7천억원)의 신규 투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5% 줄어든 수치이며 4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9년 만의 최소치다. 직전분기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못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